

###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30 중장기 경영전략 및 디지털 전환 선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2030 중장기 경영전략' 미션·비전 및 디지털 전환 선포식을 개최하고 향후 5년간 공단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공유했다.

공단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서비스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지역과 상생하며 주민이 가장 신뢰하는 도시서비스 리더'가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만족과 스마트안전, 상생발전, 공정신뢰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주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디지털 혁신과 ESG 가치 결합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먼저 '지역밀착형 고객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과 효율 중심 디지털혁신'으로는 AI와 IoT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주민과 상생하는 ESG 가치 선도'를 통해 탄소중립과 친환경 경영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공정과 신뢰 중심 기관경영'으로는 공정한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소통과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재정건정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우 이사장은 "이번 중장기 경영전략은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공단의 약속"이라며 "디지털 혁신과 ESG 가치를 중심으로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계양구, 관내 중·고교 순차방문 교육환경 및 통학 안전 점검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학교 운영 전반과 교육환경, 통학 안전 여건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학교별 특성과 여건에 따른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 간담회에는 유환 구청장을 비롯해 각 학교 교장, 교직원, 학교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과 교육환경 개선 필요 사항, 학생 통학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한 통학로 여건 개선과 보행 안전 확보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추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윤환 구청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교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인천 로봇산업 혁신성장, 대학에서 속도 낸다

#### 인하대 교육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로봇 분야 선정...국비 116억 확보 로봇랜드·산업단지 연계... 지속가능한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 기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로봇 분야에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2026년 3월부터 4년간 로봇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하대는 이번 선정을 통해 국비 약 116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연결 물류를 위한 모바일 로봇 산업 전문인력 약 240명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초연결 물류란 생산-보관-운송-배송 등 물류 전 과정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과 로봇을 실시간 연결하여 정보와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물류 체계를 의미한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하대는 '인공지능(AI) 로봇 융합전공'을 신설하고 실물 인공지능(Physical AI) 로봇 설계와 스마트 물류 로봇 운용 트랙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로봇 설계와 운용 기술을 융합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구축, 운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자율 로봇 기반 시스템을 적용, 운영할 수 있는 실무형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이번 특성화대학은 "NEW MOVE"를 주제로 모바일 로봇 통합 시스템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산업 수요 반영 실무형·프로젝트 중심 기기관·기업과 연계한 국제 공동 교육, 공학·항만·제조시설 등 실제 물류 환경 기반 실증 및 검증 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특히, 업계 맞춤형 실

물 인공지능(Physical AI) 로봇 및 스마트 물류 로봇 교육이 가능한 통합(One stop) 로봇 교육 거점을 구축하고 차세대 실습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인천 로봇산업 혁신성장 정책'과도 긴밀히 연계되며, 인천시는 인하대에 재정 지원을 통해 로봇 특성화대학 교육 기반 시설 확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로봇기업이 요구하는 지능형 모바일 로봇 분야 전문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5년 12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되고 2026년 말 분양 예정인 인천로봇랜드를 비롯한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해 '교육-산업-지역'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로봇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전문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지역 로봇기업의 인력 수요에 부합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3월 1일자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월 20일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3월 1일자 신규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새출발을 하는 교사들을 격려했다.

도교육감은 유·초·특수·보건·사서·

전문상담 등 초등 분야 187명과 중등 신규교사 574명 등 총 76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도 교육감은 "공무원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다"며 "육

망과 양심 사이에서 바른 기준을 세우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교사는 기술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가능성을 이해하는 존재"라며 "학생들의 감정과 특성을 존중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사는 관계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하는 직업이지만 혼자 지나치게 건디기보다 주변과 교육청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지원을 강화해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 학생 중심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심하린 기자

## 남동구, 2026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접수

남동구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이웃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 형성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가꾸기 ▲마을활동가 등 4개 분야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여성·아동 친화, 교육, 안전, 경제, 친환경, 문화, 기타, 마을가꾸기(특화)'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밀착형 마을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사업은 공동체 형성과 활동 단계

공동체별 최대 300만 원, 마을가꾸기 사업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참여 공동체 간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돕고, 회계 및 사업 관련 상시 상담과 컨설팅 등 실질적 지원을 수행하는 마을활동가 분야는 자격 기준을 지난해보다 완화·확대하여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 까지로, 구는 서류 및 면접 심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체는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활동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마을의 변화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에서 비롯된다"라며 "주민의 작은 아이디어가 마을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화군, 다송천 물고기 집단 폐사 규명 착수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송해면 다송천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폐사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송천 어류 집단폐사 역학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강화군은 23일 용역 수행 기관인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착수 보고회를 열고 향후 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다송천과 묵숙천 일대를 대상으로 ▲하천물 상태 ▲하천 바닥에 쌓인 퇴적물 ▲인근 산단의 영향 ▲물고기와 수서생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어류 폐사 원인을 파

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인근 지역에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배출수와 우수·우수관로 등 오염 가능 지점을 포함한 오염물질의 발생 지점과 이동 경로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조사와 함께 후속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부터 하점 산업단지 내 배수관로 정비설계를 착수하여 노후 배수관과 우수·우수 분리 상태에 대한 전수 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월 9일부터는 사고가 발생한 구간과 인근 하천에 대해 준설 작업을 실시해 오염 가능성이 있는 퇴적물을 제거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끝까지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불법 배출이나 관리 소홀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 연수구, '나도 AI 아티스트! 교육 참여자 모집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다음 달 21일 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진행되는 '나도 AI 아티스트! 영상부터 음악까지 한번에 끝내기' 교육 참여자를 오는 25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확산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주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도록 마련됐다.

특히 고가의 유료 프로그램 대신 스마트 폰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쓸 수 있는 무료 앱(챗GPT, 수노, 캡컷 등)을 활

용해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총 120분간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챗GPT와 달리를 활용한 4컷 만화 제작, ▲수노를 활용한 배경음악 제작, 캡컷으로 편집하는 '나만의 숏폼 영상 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AI)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부터 창작 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층까지 전 세대가 함께 소통하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하린 기자

성남시

# 닥터 성남

Dr. Seongnam 예방케어

독감 예방접종

성남 시민 누구나, 나이 상관없이 접종 가능  
※ 성남시 지정 의료기관

접종비 무료

백일해 예방접종

성남시 '임산부-배우자 및 양가 부모' ※ 지원대상 등록 필수 상시 접종

접종비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 이상 성남 시민  
백신비 무료, 접종비(19,610원) 본인부담  
※ 60세 이상 저소득층(보건의료) 무료 접종

접종비 무료

A형간염 예방접종

성남 시민 20 ~ 49세 취약계층, A형간염 고위험군  
접종비 2회 지원, 상시 접종

접종비 무료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최대 44만원

소득·연령 상관없이 성남 시민 누구나 성남시 33만 원 + 국가 11만 원  
※ 보건소에서 1차 선별-진단검사를 받아야 지원 가능(연중 상시)

수정구보건소 031-729-3870, 중원구보건소 031-729-3930, 분당구보건소 031-729-3990  
※ 위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에 문의하십시오.